

미주성시화 10주년 '거룩'을 위해 더욱 매진

교계 지도자 및 관계자들 참석해 축하

미주(LA)성시화운동본부&홀리클럽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17일(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송정명 목사)에서 드리고, 거룩성 운동에 더욱 힘을 다짐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교협과 함께 교회 연합 행사를 주도해온 단체로, 지금까지 사랑의쌀나눔운동, 다민족연합기도대회, 로즈블연합기도회, GKYM 청년선교대회 등 남가주의 굵직한 행사에 참여해 오고 있다. 이번 10주년 감사예배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설교를 전한 박희민 목사(대

표희장은 "개인이나 기독교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는다. 교회가 기복주의, 세속적인 성장주의에 빠져,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활동하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며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성시화운동을 기대한다. 영적 각성운동의 시작은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한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협 회장)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복음의 사람들이 연합해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나갔으면 한다"고 했으며,



미주(LA)성시화운동본부&홀리클럽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10년을 향해 더욱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민경엽 목사(OC교협 회장)는 "성시화운동본부를 통해 거룩의 운동이 더 확장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예배는 사회 송정명 목사(LA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찬양 박종술 목사(KCCC 나사렛 책임), 감사기도

이성현 목사(LA공동회장), 10주년 사역보고 신기대 선교사, 김인화 선교사, 설교 박희민 목사, 축사 진유철 목사, 민경엽 목사, 인사말씀 김경수 장로(미주홀리클럽 회장), 축도 한기형 감독(상임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특별순서로 방미 중인 한국식

도교회(박영민 목사) 드림뫼찬양선교단이 울동 찬양을 선보여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미주 성시화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AMERICA HOLY'(7호)가 발행돼 배부되기도 했다.

토마스 맹 기자

책과 사랑

성경 쉽게 읽는 방법 바로 '여기'에
 <씩난 지팡이> 낸 이학진 장로

성도들이 새해를 맞을 때마다 신년목표로 빠지지 않고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통독'이다. 특히 평신도들에게는 방대한 분량에 대응 용이하지 않아서 성경 한권을 다 읽기는 만만치 않다. LA사랑의빛 선교교회 이학진 장로는 평신도들에게 성경통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길라잡이 <씩 난 지팡이>를 냈다.

"지난 18년간 교회 구역예배에서 말씀 인도자로 사역하면서 평신도들로부터 성경읽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말씀 읽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10년 전에 시작해 지난 5년 동안 하루 8-10시간 동안 전력투구하며 책을 쓰는데 매달렸다. 또 교회사, 기독교 사상사 등 40여권의 서적을 읽었다.

이 책은 구약성경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로 나뉘고, 신약성경은 사복음서와 역사서, 바울서신, 일 반서신과 예언서로 나뉘었다. 그리고 특별히 쉽게 머리와 가슴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였다.

<관계기사 10면>

12개 단체 연합... '범남가주 이단대책 협약' 체결



남가주 일원 12개 교계단체 대표들이 14일 '범남가주 이단대책 협약' 체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가주 일원 각 교계단체가 남가주에 창궐하고 있는 이단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협약을 맺고, 앞으로 긴급 필요 시 연합으로 공동성명과 대응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범남가주 이단대책 실무모임 및 기자회견이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단체장들은 최근 12개 단체에서 회의를 열고 '범남가주 이단대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는 남가주교협(회장 진유철 목사), 남가주목사회(회장 이운영 목사), 동부교역자협의회(회장 김병학 목사), 밴주교협(회장 이상영 목사),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구진모 목사), 샌디에고교협(회장 김명락 목사), 샌버나디노카운티교협(회장 정충재 목사), 샌페르난도밸리교협(회장 이준우 목사), OC교협(회장 민경엽 목사), OC목사회(회장 신종은 목사), 인랜드교역자협의회(회장 유수

열 목사), 중부교협(회장 과소건 목사)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단체장들은 이단대책 모임을 갖는 목적으로, "각 교협과 목사의 연합모임을 통해 이단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들의 정보를 노출시켜 활동을 제재하는 등 기타 효율적인 대처로 남가주 교회와 성도들을 참된 신앙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관계 기사 3면>

토마스 맹 기자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 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 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나라정비 ASE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 할인해 드립니다.

하와이 한인 이민 기독교 110주년 기념
2013 한민족 복음화대회
 조국 대한민국의 해의 이민의 첫 도래지요, 세계한인교회의 첫 열매요 시작이었던 하와이에서 한인 이민 기독교 110주년 기념 '한민족 복음화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과 미주 그리고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세계복음화 열정을 모아, 세계한인교회 110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한민족의 기독교 신앙의 위상을 열방에 선포하는 이 역사적 대회에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일시 : 2013년 4월 10일(수)-14일(주)
 장소 : Hawaii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퍼시픽 비치 호텔,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주최 및 주관 : 하와이 한인기독교총연합회
강사 /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흥규 목사(인천내리감리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목사(서울축복의교회 담임목사)
 하와이 한인 이민 기독교 110주년 기념 한민족복음화대회 L.A. 지부 김모세 목사 전화 213-507-2399, 507-3875
한인 디아스포라 110년, 그 교회들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인터림 이종민 목사 인터뷰

지난 10월 사우스베이 대표적 한인 교회인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인터림 목회자로 이종민 목사가 부임했다. 이필재 목사가 떠난 뒤 두 번의 내용을 겪었던 탓에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이는 이 교회에, 그가 부임한 지 이제 넉 달째로 접어들었다. 올해로 그의 나이 71세. 40년간 이민목회를 해온 선배의 눈에 비친 토랜스제일장로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궤도에 올랐다는 것. 교회를 찾아온 기자에게 건물 구석구석을 소개하면서 “이 교회도 하나님이 좋은 목회자 주실 거라 믿는다. 그럼 난, 아프리카로 선교 갈테야”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엔 하루라도 빨리 교회가 예전 형상과 영광을 회복하길 염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선 그의 이력부터 살펴보자. 77년 시카고 나일스에 위치한 레이뷰한인장로교회를 개척해 31년간 시무하며 시카고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그는, 2세 교회를 3곳이나 개척해 내보냈다. 그리고 나일스한국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한인 2세를 키워냈다. 그러다 65세가 되던 지난 2008년 1월 돌연 담임직을 내려놓고 은퇴했다. 정년이 다 됐다든 이유였다. 그가 속한 PCUSA 교단법 상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목회할 수 있지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해 교회에 넘겨 주었다.

은퇴 당시 그는 “담임목회직이 공식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후임 청빙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터림 목회자로 타지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텍사스 어스틴한인교회 인터림 목회자로 1년, 2009년 7월부터 페오리아장로교회에서 3개월, 이어 미네소타침례교회에서 6개월간 잇달아 인터림으로 시무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중순 교회 정상화를 위해 도와달라는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청빙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LA로 왔다. 오는 2013년 9월 말까지 1년간의 계약을 맺고서다. 부임 당시 한미노회 목회위원회에서 파송된 이귀호 장로가 당회장 역할을 담당해 오다 11월부터 한미노회 행정전권위원회(AC, Administrative Commission)로부터 당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금은 행정까지 병행하고 있다.

통상 ‘인터림(Interim)’이라고 하면 단어 그대로 ‘임시’ 역할이기에 자칫

‘땀땀’에 지나지 않을거라는 시각도 있을 터. 하지만 이에 대해 그는 “교단 내 정식 인터림 목회제도가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인터림 스페셜 트레이닝’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역할이 바로 인터림”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PCUSA 산하 9개 교단 신학교에서 2주 과정의 집중적인 훈련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40년이 넘도록, 그것도 한 교회에서만 31년간 이민목회를 해온 베테랑



나는야 인터림 목회자

40년 목회 외길 인생

상처 싸매는 힐링이 내 사역의 포인트

에게 ‘더 이상 무슨 트레이닝이 필요하냐’ 싶다. 실제로 인터림으로 첫 부임한 텍사스 어스틴한인장로교회에서도 자격증 따위 묻지도 않고 받아줬었다. 하지만 해보니 ‘아무래도 받아야겠다’면서 필요성을 절감한 뒤 자진해 프린스턴신학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다. 3년 전의 일이다.

그에 따르면, 인터림 목회자에게 필요한 ‘역할’이 따로 있다. 일반 목회의 경우 설교와 양육, 심방, 행정 등이 주된 사역 내용이라면, 인터림 목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역은 회복과 치유, 그리고 안정이다. 설교는 어떤 식으로 전해야 하는지, 회복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하루 7-8시간씩 맹훈련을 거친다.

교회 정상화를 위해 인터림 목회자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크게 다음의 세 가지란다.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케리그마)이요, 셋째는 심방 곧 상담이다. 선포하는 메시

지 영 분별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케네)의 잣대에 비춰 기도를 통해 영 분별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상담 분야에 있어선 오하이오 정신병원에서 1년간 임상 전공 과정을 거쳤으니, 가히 전문가 수준이다. 그는 이때 배운 경험을 살려 시카고에서 많은 한인 동포들을 상담하면서 그들과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보듬어왔다. “목회자는 영적 리더이자 카운셀러입니다. 기도하면서 힐링하는 상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현재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의 인터림 기간 동안은 원하는 교인에 대해 심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코이노니아(교제)에 대해서도 “예배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대화 나누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게 중요

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1일 부임하자마자 매일 새벽기도부터 시작해 수요일예배, 금요일 성경공부, 주일설교 1.2.3부, 경조사 예배까지 일주일에 적어도 10여 차례 설교를 소화해내며 실새없이 달려왔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목회자 미팅을 갖는다. 지난 석 달간을 되돌아보며 느낀 것은 안정이 돼가면서 회복단계에 이르렀구나 하는 겁니다.

하면 됩니다. 그럼 뒷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결국 그를 높이십니다. 거기까지 희생할 목회자가 오면 되요. 가만히 보면 희생 안 할려고 하니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교회가 겪은 두 번의 내용으로 분가해 나간 주님세운교회와 살롬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니 ‘큰 집’ ‘작은 집’이라 생각하고 서로 아름답고 화목한 역사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어디서 만나도 서로 ‘허깅’하고 손잡고 그래야죠. 다들 어려운 시기를 거쳤는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됨으로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말미에서 그는 의료선교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도 내비쳤다. 의사인 막내 딸과 남편이 펜실베이니아 소재 의료선교단체 ‘큐어’를 통해 에티오피아 등지에 나가 3년간 봉사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딸을 둔 덕에 아프리카가 그리 멀지않게 느껴진단다. 틈틈히 “아프리카 선교 구제헌금을 모아왔다”는 그를 보면서, 언젠가 아프리카로 훌쩍 떠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 그에게 맡겨진 ‘교회 안정화’와 ‘후임 목회자 청빙’이라는 숙제를 마치고 나면 말이다.

■ 이종민 목사는 누구?

지난 특별새벽기도 기간 중엔 매일 70~100여명의 교인들이 참석해 열심으로 기도했었죠. 이 기간 중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는 주제를 놓고 교인들과 함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말씀에 은혜받은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또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식사 준비하는 권사님들을 비롯해 뜨겁게 기도하는 교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이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임 당시만 해도 지난 5월 나뉘진 이래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 남아있는 1세 교인수는 고작 300명 정도였다. 그러다 차차 안정화되면서 지금은 1세와 2세, 3세 출석교인을 합하면 무려 9백여명에 이르는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임직자 공천을 마무리짓고 새 당회 출범을 남겨두고 있다. 이어 후임 목회자 청빙위원회를 조직해 본격적으로 청빙을 시작한다는 로드맵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힐링 사역이 무리하게 되면, 금년 중반기 즈음엔 교회가 상당한 회복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후임 목회자에 대해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목회자, 예수님을 꼭 닮은 분이 오셨으면 한다”고 말한다. “목회자는 자고로 ‘빌립보서 2장 5-11절’ 이것만

초등학교 5학년이던 1953년 부흥회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으로 체험한 뒤 미국장로교 남선교부가 세운 전주 신홍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합석현 선생의 제자로 평양숭실학교 교사를 역임한 김창식 국어선생을 만나 성경공부와 함께 제자훈련 및 농촌 계몽운동을 위해 조직한 ‘참흙 클럽’에 가입하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후 한국신학대학에서 신학(B.Th.)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기독교윤리학으로 석사(Th.M.)를 마쳤으며, 1966년 철원 오성산 인근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목회를 시작했다. 68년 이 세는 사모와 결혼에 이어 71년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어 일본 동경신학교에서 1년간 수학하다 오하이오의 와인브레너신학대학(Winebrenner Theological Seminary)로 유학해 목회학 석사(M.Div.)를 마쳤다. 이후 맥코믹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다. 1977년 시카고 레이뷰한인장로교회를 개척했으며 모교인 맥코믹에서 객원교수로 가르쳤다. 소속 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의 한인교회협의회체인 NKPC에서 제36대 총회장을 역임했다.

정하나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울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마·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미국 무제한 통화 \$9.99/월

비싼 집전화는 가라! 아이토크비비가 나가신대!

무계약 + 4개월 무료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무계약+4개월 무료* 프로모션은 2013년 2월 28일 로 종료됩니다.

패밀리 알뜰 플랜 \$4.99/월
미국 최저가
▶ 수신 무제한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기존 전화번호 이전 가능

글로벌 플랜 \$24.99/월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환 기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월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한국 휴대전화까지 무제한

LA 직영점 (코리타운 캘러리아 304호) 213.559.7557 | 1.800.872.2902

www.Korea.iTalkBB.com

고객지원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분PST)

흑인 역사의 달 맞아 제 7회 다민족조찬기도회

유대인 개신교 목회자 아더 펄스 “사랑과 용서 통해 다민족 하나돼야”



‘흑인역사의달’을 맞아 (제7회 다민족조찬기도회)가 170여명의 백인, 흑인, 라티노, 동양인 등 지도자 및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LA한인타운에 위치한 가든스윗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설교자로 나선 유대인 개신교 목회자 아더 펄스 목사는 “다민족간 아픈 상처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싸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자”고 강조했다.

“언어와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분열된 각 커뮤니티간 평화와 화합을 위해 기도하며 연합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

리라 믿습니다” (KLCA 김태현 대표) 2013년 ‘흑인역사의달’을 맞아 <제 7회 다민족조찬기도회>가 16일(토) 오전 8시 가든스윗호텔에서 170여명의 백인, 흑인, 라티노, 동양인 등 종교 지도자 및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리언·라티노커뮤니티협회(KLCA, 대표 김태현)가 ‘하나님 안에서 사회 연합’이란 주제로 주최한 가운데 사역자들은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다민족간의 인종차별과 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

소되길 기도했다. 설교자로 나선 유대인 개신교 목회자 아더 펄스(Rev. Dr. Arthur Perles) 목사는 “다민족간의 서로 아픈 상처를 사랑과 용서를 통해 우리 다민족 목회자들이 먼저 인종간의 벽을 허물

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며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LA에 다시 성령의 불꽃이 임하도록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커뮤니티 평화봉사상에는 라티노 목회자인 얼머 잭슨 목사(Elmer Jackson)와 백인 목회자인 에릭 티즈 목사(Erick Tielze)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얼머 잭슨 목사는 지난 24년간 볼드윈공원에서 술과 마약중독자들을 범죄의 환경에서 보호하고 재활치료와 교육을 통해 새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도왔다. 에릭 티즈 목사는 20여년간 커뮤니티 평화를 위해 히스패닉지역인 몬테벨로시에서부터 남가주에 걸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특히 지난해에는 3300만달러에 달하는 음식을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들 120만 명을 대상으로 나눠줬다고 KLCA 측은 밝혔다.

한편, 90세 이상으로 후배 목회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목회자에게 주는 상인 ‘평생목회자상’은 91세 백인 목회자 워런 버익(Warren Berwick) 목사가 수상했다.

토마스 맹 기자

>> 기사 1면에서 이어짐

진유철 회장은 “한국의 한복협에서 지난달 개신교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여론조사 한 결과 ‘이단이 많아서’가 10.7%로 가장 높았다. 앞으로 12개 기독교 단체가 연합해 이단 침입을 막기를 원한다”며 “문제는 없앨 수 없지만 맑은 샘물이 터지면 물이 정화되듯이, 남가주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살아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는다. 예수님의 생명이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OC교협 이단대책위 위원장 이호우 목사는 “지난해 신천지가 구 수정교회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각 지역 교회가 연합해 피켓시위를 펼쳐서 집회가 위축됐다. 올해도 교협을 중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모임도 겸해 열린 가운데 교계 단체장들은 한국 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에수교 증거장막 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에 대한 경계와 우려를 나타냈다. 참석한 교계 인사들은 신천지가 현재 남가주에 광범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LA의 한 대형교회 D교회 청년부 상담수가 신천지 교인들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남가주교협은 ‘우리 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팻말과 계시물을 산하 회원교회들과 공유키로 하고 교회들은 교협 사무실로 문의할 것을 부탁했다.

범남가주 이단대책 모임에서 교계 인사들은 이단지침서를 밝힌 가운데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성경 이외의 계시를 주장하는 자 △믿음이 아닌 행위 구원을 강조하며 다른 예수를 주장하는 자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자 등을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이단대책을 위한 12개 남가주 단체의 협약서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이단들을 막기 위해 함께 대처한다. 2. 우리는 이단이 활동할 때에 공동성명을 낸다. 3. 우리는 이단의 활동에 대해 공동 대처한다. 4. 우리는 이단대책을 위해 실무활동에 협력한다.

12개 단체의 이단대책위원장 김사무엘 목사는 “기독교의 약점을 이용해 공격하는 이단들에 대해 정직하게 대처해서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피릿 무브먼트 부흥사경회 오는 25일



박용덕 목사

뉴스피릿 무브먼트 상임대표 박용덕 목사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거룩성을 위해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부흥사경회는 문제 해결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강사로는 지구촌미래지도자협의회 총재 임찬양 목사(천안 흥통한 교회 담임)가 나선다. 집회는 남가주빛내리교회(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에서 25-28일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45분에 각각 열린다.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 Chicago : Skokie

약도: Lajolla, Fairfax, Wilshire

OC기독교교회협 주최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1백여명 한인 리더들 참여... 지역사회와 커뮤니티 위해 기도하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 각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16일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는 지난 2월 16일 (토) 오전 7시 30분 오렌지카운티 지

역 각 단체장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회장 민경엽 목

사의 사회로 시작하였으며 한기홍 목사(OC교협 증경회장)의 설교에 이어 김영수 장로(OC교협 후원이사장)의

기도와 나침반교회 남성4중창단의 찬양이 있었으며 특별히 단체장들을 축복하고 지역사회와 커뮤니티를 위해 기도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회장 이호우 목사, 김기동 목사, 민승기 목사의 릴레이 기도가 있었으며 영영민 목사(직전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2부 순서에서는 미셀 스틸 박(가주주세형평국 부의장)의 특별간증이 있었으며 이어 식사와 더불어 각 단체장 소개와 각 단체의 사역 소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스티브 황보 라팔마시 시장과 밀리오 부에나파시 부시장과 피터김 라팔마시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오덕재 회장과 임원, 민주평통 OCSD협의회 한광성 회장과 임원, 오렌지카운티한인축제재단 정철승 회장과 임원, 오렌지카운티상공회의소 브라이언한 회장과 임원, 오렌지카운티체육회 명호석 회장과 임원, 한인문화재단 이상원 회장과 임원, 오렌지카

운티한미시민권자협회 김도영 회장, 오렌지카운티건강정보센터 웬디유 회장, 재미마도협회 최학선 회장과 임원, 한빛선교봉사회 조영원 회장, 푸른초장의집 임영아 회장, 미주한인재단 티스틴지희 김경자 회장, 오렌지카운티목사회 신종은 회장과 임원 등 24개 단체장과 임원들 그리고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과 후원이사과 회장단 및 임원과 분과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끝으로 OC교협 부회장 송규식 목사가 금년도 사역을 소개했다. 그는 >3월 말 OC지역 교회연합 부활절새벽예배를 비롯 >5월 사모 초청 블레싱 나잇(Blessing Night) >6월 청소년들을 위한 크리스천아이돌 콘테스트와 문화행사 그리고 >8.15 광복절 감사예배와 >9월 자녀교육세미나 >10월 영적대각성집회 등 주요 사역 계획에 대해 소개했고, 이사장 박옥덕 목사의 폐회기도로 이날 모임을 모두 마쳤다.

미안마 신학생 돕는 정기공연 내달 17일 개최

정상급 음악가들 총출동... 솔로몬대학교 주최 본보 후원

제7회 미안마 원주민신학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정기공연이 솔로몬대학교(총장 백지영 목사) 주최 및 기독교일보 후원으로 오는 3월 17일(일) 오후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된다.

솔로몬대학교는 8년 전 전체 인구의 99%가 불교도인 미안마에 신학교를 설립해 현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지도자 양성에 힘써 왔다.

현재 교아원과 동시에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3회에 걸친 졸업식을 통해

교회 개혁과 선교에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돼 왔다. 전액 장학생 제도로 운영되는 이 신학교는 박영 선교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사역을 펼쳐오고 있다.

현지 장학생과 상처받은 고아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공연에는 바리톤 기노 가우디오(Gino Gaudio), 장상근, 소프라노 샤나 블레이크 힐(Shana Blake Hill), 황혜경, 최정원 등 정상급 음악가들이 출연한다. 합창단으로는 큰빛남성합창단을 비

롯해 세계비전사랑성가대, 남가주한인장로성가대, 은혜한인교회합창단, 이화여대합창단, 미주여성코랄, 숙명칸테모스 등이 출연한다.

백지영 목사는 "은 가족이 와서 은혜받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미안마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티켓은 10불.

>문의:(213)739-0403, (323)708-9191 토마스 맥 기자



백지영 목사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에서 살아있는 곳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 헤어 컬러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테이트 \$100 up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되라!

나눔과 섬김의 교회 창립예배 드려



(사진 맨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나눔과 섬김의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

지난 주일인 17일 오후 4시 LA 한인타운에 또 하나의 교회가 개혁을 시작했다. '세상 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란 슬로건을 걸고 사역의 첫 발을 내딛은 나눔과 섬김의교회(담임목사 엘리야 김)가 바로 그것.

이들은 이날 개척예배를 드리고 새 출발을 알리면서 "교회의 모든 재정도 세상을 위해 섬기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교회의 재정에 관한 운영 철학은 대략 다음과 같다. >평신도가 재정을 관리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는 물질로 나누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성도는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는 것.

이날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엘리야 김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정해진 목사(남가주명성교회 담임)는 '하나님의 본심(애3:33)'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의 본심(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하며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

회가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며 "나눔과 섬김의교회가 LA 지역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라"고 권면했다. 이어 윤진창 목사(미주장신대 동문이사장)가 축사를 전했다. 양기호 목사(전 미주장신대 이사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인사말을 전한 엘리야 김 담임목사는 "남가주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고자"한다면서 "남가주 지역에 구제사역을 하는 여러단체들과 협력해 나누고 섬기는교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교회는 매월 첫 주일 오후3시 아가페 홈미션(이강원 목사)를, 매월 두번째 토요일 오전 10시 발달장애 우선교회, 평화의집(전영훈 목사)를, 매월 세번째 토요일 오전 10시 홈리스사역, 거리의교회(전예인 목사)를, 매월 세번째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노인환자 돌봄사역·중앙양로병원을, 매월 네번째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홈리스사역·울타리선교회(나주옥 목사)를, 매월 네번째 금요일 오전 10시 교도소사역·교도소선교회(조성도 목사)를 방문해 섬긴다는 계획이다.

이인규 기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애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경연을 엽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중양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	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	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	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합찬: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열매이 사랑교회, 믿음의 우산을 전하는 선교교회, 데이빗 백 변화사 그룹, 머뭇한 변화사 그룹, 가주 일로포텔, Lahenco, Inc, 웨일리 자동차, 남가주 청년도도연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여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들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탑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교계 브리핑

ADHD 장애 학생을 위한 무료 워크샵

미주 한국인심리화학회가 주관하는 ADHD 장애 워크샵이 열린다. 대상은 집중력이 부족해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ADHD(과잉행동 집중력 결핍장애) 판정을 받은 4학년에서 6학년의 초등학생으로, 3월 한 달간 총 4회에 걸쳐 그룹치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ADHD와 두뇌의 관계 ▷자기인식과 자신감 ▷공부 기술 ▷친구 사귀기 ▷가족에 대해서 ▷자율성과 자이발전 등의 주제를 다룬다. 이 기간 중 치료는 석·박사 레벨의 심리치료가 담당, 저스틴 최 박사가 치료감독 및 지도를 맡는다. 워크샵은 LA 한인타운에서 오는 3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열린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한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 293-0123 또는 이메일 info@kapaonline.org로 연락하면 된다. 웹사이트 www.kapaonline.org

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열린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한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 293-0123 또는 이메일 info@kapaonline.org로 연락하면 된다. 웹사이트 www.kapaonline.org

▷주소: 32000 263rd St. E., LLANO, CA. 93544(햇불선교센터기도원) ▷문의:(626)419-6804, (760)835-0363

OCU 정기예배 드려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교회(OCU, 회장 장석운 장로, 육사 11기)가 2월 정기예배를 11일 미주북음방송 4층 공개홀에서 드렸다. 육군 수도군단 소속으로 유학(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박사과정)중인 서우정 군목(중령진급)이 이날 '꿈의 실제'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OCU는 매일 둘째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미주북음 방송 4층 공개홀에서 모인다. ▷문의: 818-905-9061(장석운 장로)

햇불 전인치유기도회

제 102회 햇불전인치유기도회가 오는 23일(토) 오후 2시에 햇불선교센터기도원(원장 정희욱 목사)에서 열린다. 기도회에는 한국에서 이준석 복음가수가 초청돼 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새해를 맞으면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하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개신교 예배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짚어본다



(사진 왼쪽부터) 패널리스트 김대권 목사, 노형건 선교사, 지명현 목사

개신교 예배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예배음악 심포지움'이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월드미션대학교 6층에서 열린다.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주제는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의 음악, 이대로 좋은가'이며,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음악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패널로 김대권 교수(미드웨스트대학 교회음악과), 노형건 선교사(글로벌 메시아 선교단장·월드비전 홍보대사), 지명현 목사(소리엘 찬양사역자, 그레이스 벨리 미니스트리 대표)가 나

악, 이대로 좋은가'이며,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음악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패널로 김대권 교수(미드웨스트대학 교회음악과), 노형건 선교사(글로벌 메시아 선교단장·월드비전 홍보대사), 지명현 목사(소리엘 찬양사역자, 그레이스 벨리 미니스트리 대표)가 나

월드미션대학교 주최

예배음악 심포지움 열린다

선다. 이들은 각각 오늘날 예배음악의 트렌드를 둘러싼 ▷전통적인 시각에서 ▷컴퍼니의 시각에서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는 견해에 대해 발제한다. 윤임상 교수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오늘날 예배음악의 유행을 짚어보고 각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제시하는 진정한 예배음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각 교회 예배, 찬양 지도자들을 비롯 관심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밝혔다. ▷월드미션대학교 http://wmu.edu

목회자의 리더십 어떻게 세워갈까



세미나에 남가주 목회자 60여명이 참석해 리더십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자마(JAMA) 주최로, 목회자를 위한 총체적 리더십 세미나가 4일(월) 오전부터 6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벤추라카운티에 소재한 Pierpont Inn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자마 대표인 김춘근 교수와 동부에서 2세 목회를 하고 있는 대니 한 목사(Danny Han, 조이크리스천 펠로우십 담임)를 강사로, 남가주 지역 담임 목회자들 60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세미나에는 진유철 남가주교협 회장과 임원들을 비롯해, 민경엽 OC교협 회장, 김명락 SD교협 회장, 구진모 사우스메이교협 회장, 이준우 벨리지역교협 회장 등 리더십에 관심있는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이 바로 세워질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주강사로 참석한 김춘근 교수는 대학에서 38년간 리더십을 가르

자마 "총체적 리더십 세미나"

김춘근 교수·대니 한 목사 강연

쳤으며, 그동안 LA와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비롯해 한국, 뉴질랜드, 브라질 등지에서 리더십 강의를 해왔다. 그는 일반적인 리더십 뿐 아니라 영적 리더십, 본인의 사회적, 영적 경험, 2세 사랑, 미국 사랑을 중심으로 열정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강의를 이끌었다. 한편, 대니 한 목사는 "한인 1세 목회자들이 전 세계 목회자들이 배우고 싶은 뜨거운 영성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 목회자들로 인한 2세 목회자들의 상처 때문에 1세들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로 이해와 존중을 통한 화해의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펼쳐 목회자들에게 감동을 줬다. 세미나 기간에는 진유철 목사가 개회예배를,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와 열바인침례교회 한중수 목사가 오전 예배를 각각 인도했다.

벤추라역자협의회 주최 음향세미나 성황리 열려



레이저비전 김영덕 부장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4차 음향·영상세미나)가 14일 벤추라카운티에 위치한 옥스나드연합감리교회(담임목사 박민규)에서 열렸다. 벤추라교역자협의회가 주최하고 교회음향 전문업체인 레이저비전이

주관, 본보가 후원해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미디어 사역자가 없는 벤추라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해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레이저비전 김영덕 부장은 "목회자들이 음향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어도 마이크나 엠프, 스피커 기기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교회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목회자가 음향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세미나 이후에는 평소 궁금했던 엠프 사용법과 기능 등에 대해 목회자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효과적인 미디어 사용법을 익히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벤추라교역자협의회 회장 이상영목사는 "마이크나 교회 음향은 목회자들의 설교 전 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환기

시켜주는 귀한 세미나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벤추라지역 부활절연합예배와 지역 친선족구대회, 연합성탄예배 등 행사 일정과 담당자를 정해 행사가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한편, 벤추라교역자협의회에는 다우전옥스한인장로교회(이중수 목사), 새생명장로교회(이태호 목사),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오정택 목사), 리빙스톤교회(정준호 목사), 시미벨리한인교회(반재근 목사), 시미벨리연합회(이윤호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조인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박민규 목사), 옥스나드한인교회(김진국 목사), 벤추라감리교회(최상훈 목사), 열린문장로교회(김경욱 목사)가 속해 있다. 이인규 기자

스마트 월드

건강용품 전문점

타주 무료배송!
2년 무이자 할부 판매!
엘에이 총판 딜러십 획득

www.Gosmartworld.com

후지타만에 강력한 특성!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됨

FUJITA
2013 최신형
KN9003

전문 안마사에 안마를 원하십니까?
후지타 전신 마사지체어를 만나세요

세계 유일한 전신 마사지체어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허리. 어깨. 교정 시스템

★★★★★



머리 뒷골 및 머리 안마를 시원하게 함
세계 유일의 머리 안마 시스템!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환상적 어깨 3 회 10초씩, 허리 3회 60초씩
전문 타이 스트레칭!
허리디스크, 자궁 신경통 교정에 최고!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양 팔과 양 발을 동시에 지압
3 단계 강약 조절을 선택할수 있음!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NEW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
성과와 기능은 세계 최고!
가격은 타사 제품의 반값!

에어 전신 스윙 안마
차별화된 안마에 대만족!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세계 유일한 발바닥 롤러 마사지 시스템
발바닥이 엄청 시원해요!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전자파 없는 원적외선 온열시스템으로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최고!
면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무료 체험 환영합니다!!

바른 선택은 구입후 후회나 속상함이 없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비교하세요 성능과 기능을 - 비교하세요 품질과 가격을

Fujita KN9003	\$4,200	비교 VS	Inada-Sogno	\$8,000
Fujita SMK9100	\$4,300		Panasonic MA-70	\$7,000

Fujita 을 선택한 순간 최고의 가치와 만족을 누릴것입니다



세계 유일한 플옵션 전문 전신 안마용!
베스트 셀러!
★★★★★
FUJITA
Model: KN9003
Retail: \$6,499
SALE
35% OFF
+Tax
Sale: \$4,200

노약자 및 재활치료용
FUJITA
Model: SMK9100
Retail: \$6,999
SALE
38% OFF
+Tax
Sale: \$4,300

일반 DAILY 마사지용
FUJITA
Model: SMK8800
Retail: \$4,600
SALE
60% OFF
+Tax
Sale: \$1,800

스포츠 전문 마사지용
Osaki
Model: 7200H
Retail: \$4,600
SALE
21% OFF
+Tax
Sale: \$3,795



LA연합교회 설립돼 “거룩해지는 그날까지”

이 시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 그리고 실천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많아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뜻을 모은 두 목회자, 정홍권·김동술 목사가 LA한인타운 내에 LA연합교회를 설립했다.

17일 오후 1시 30분 설립예배를 드림으로 공식적인 사역의 첫걸음을 내딛은 LA연합교회는 앞으로 예뵤교회(표세홍 목사)와 같은 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 표방

물이 쓰게 된다. 2인 목회자 공동 목회를 표방하며 개척을 시작하는 LA연합교회는 ▷하나님께 순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세계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선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날 설교를 한 정홍권 목사는 “요즘 살기가 너무 좋아져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 교회에 나갈 필요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교회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며 “교회는 세상으로

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이곳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기때, 거룩과 사랑이 없으면 안된다. 오늘날 교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해주세요'라고 간구의 기도만 하지만 정작 회개는 없다. 그러나 진정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매일매일 우

리가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이 소멸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교인들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그럴바엔 차라리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죄를 지으니 교회에 와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다. 온전해질 때까지 깎여져가는 것이 거룩해져가는 삶이

”고 강조했다. 설립예배는 예배인도 김동술 목사, 기도 표세홍 목사, 설교 정홍권 목사, 축사 박노출 목사, 황은영 목사, 축도 원희천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홍권 목사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 중에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 성경에 입각한 교회를 세우고자 개척을 결심했다”며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이 시대 참된 교회상을 제시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예배와 찬양 인도를 담당하게 될 공동목회자 김동술 목사는 “요즘 교회에 스며들어 있는 세속화된 찬양 문화를 지양하고, 거룩한 찬양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기존 예배의 형식을 깨고 새로운 예배로 준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대학 수준의 성경공부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동목회 체제를 표방하는 LA연합교회 설립예배에서 정홍권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이 공부는 토요일 오전 7시, 월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주일예배는 오후 1시 30분(1부), 2시 45분(2부)에 진행된다. 정홍권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한인 최초로 학위를 받았으며, 롱아일랜드제일장로교회 담임, 뉴욕총회신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개혁대학교 신대원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김동술 목사는 영남대학교

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국제개혁대학교신대원 졸업, 열린문교회 음악목사를 역임하고 제 93회 '남북 가곡의 밤' 독창 외 수많은 연주회에서 독창을 한 경력이 있다. ▷교회주소: 685 S. Carondelet Ave., LA., CA 90057 ▷문의: (310) 661-1166(정홍권 목사), (213) 905-0445(김동술 목사) 토마스 맹 기자

최바울 선교사, 2세 중심 이슬람선교운동에 대한 전망 말하다

기자회견에 이어 '중동 민주화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세미나서 강연

인터콥 대표 최바울 선교사가 5일 오후 7시 성광장로교회(이상훈 목사)에서 '중동 민주화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슬람선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LA를 방문한 최바울 선교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이단 시비와 관련해 △신학적 부분 △선교 방법론 △교회관계 △베뢰아 △소수 부분 △백투에루살렘 용어사용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슬람선교 세미나를 개최한 목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이 때,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들이 깨어 시대를 분별하도록 돕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터뷰 측은 밝혔다.

인터콥은 1983년 한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외선교단체가 없는 곳만 선교하자'는 뜻을 모아 설립된 선교단체로 지금까지 75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활동해 오고 있다. 이 중 이슬람권인 중동지역과 서아시아 지역 파송 선교사는 500여명으로 한국 선교단체 중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현재 한국에서 60여 인터콥 지부에서 매년 1만여명, 미주지역에서 50여 인터콥 지부에서 2천 여명이 각 지역 교회를 찾아가 선교비전을 심는 비전 스쿨을 통해 훈련받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최바울 선교사는 “지금까지 35년째 이슬람권 선교를 해오고 있다. 일각에서 (인터콥이) 위험한 방식으로 선교하고 있다면서서 위험한 방식으로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는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정부의 협조를 받을 뿐 아니라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을 보내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점을 보면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인터콥에서 선교훈련을 마친 학생들이 1년간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며 생생한 삶의 현장을 경험하는 학생 선교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현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있으며, 청년들 역시 단기선교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비판을 일축했다.

최 선교사는 이어 “중동의 선교현지에 간 학생들이 현지 청년들과 1년을 보내며 진지하게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삶

을 개척해낸 1세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돌아오게 된다. 또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고 현지 선교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민사회가 2세와 1세의 갭(gap)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데 학생선교운동의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학생운동에는 매년 4백여명의 학생들이 동참하고 있다.

그는 또 “많은 단기선교지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미주 한인교회가 전 세계를 품는 교회로 설 때 은퇴사역자가 자연스럽게 선교로 이어진다.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은퇴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세계선교를 위해 댄다면 앞으로 선교의 재원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바 있는 이단시비에 대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신사도운동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다윗의 장막 찬양팀이 있을 뿐 아니라 청년들 누구나 다 쓰는 말”이라면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인터콥은

신사도운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뢰아 출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베뢰아가 교계에서 문제가 되기 이미 한참 전인 80년대에 귀신론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아 스스로 나왔다.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밝힌 바 있다. 당시는 베뢰아가 문제가 되기 전이었고 현재 교계에서 이름 있다 하는 분들 모두 그 당시에는 베뢰아에 가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콥은 KWMA 소속단체로 20여 년간 활동해 왔으며 이미 검증받은 단체이다. 한국에서 매년 1만 여명이 인터콥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 인터콥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끝으로 “KWMA를 통해 지도를 받



최바울 선교사

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가고 있다. 특정 교단에서 특정 신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복음주의 시각에서 복음적인 것들을 겸손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마스 맹 기자

인디안 알로에 베라 *신제품 알로-메타글루칸 로션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등, 당뇨병,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여호수아

미국대륙횡단선교회

본 선교회는 청소년 캠프사역으로 대한민국 2세들에게 여름방학(30일) 겨울방학(10일) 동안 광활한 미 대륙을 횡단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위대하심을 알게 해주며 신비로운 자연과 유명 관광지, 유적지, 선교지를 답사하고 동부 IVY 리그 대학들을 탐방하여 큰 꿈과 용기와 비전을 갖게하며 영적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사랑, 섬김, 협력, 리더쉽을 키우며 예수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 비 영리 선교 단체입니다.

25국립공원, 30개주, 40명소, 1만 마일, 5개 IVY리그 대학

LA->요세미티NP->타호호수->솔렉시티(소금호수)->엘로스톤NP->러쉬모어NM(대통령 큰바위굴) 시카고(시어즈타워,오대호)->클리블랜드->나이야가라 폭포->보스턴(하버드대학교,MIT 공과대학교)->뉴 헤이븐(예일대학교)->뉴욕(맨하탄, 자유여신상, 엠파이어빌딩, NYU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워싱턴 D.C (백악관, 국회의사당)->ST. Louis -> 덴버(로키마운티NP, 공군사관학교)->콜로라도 스프링스(파이크스 피크, 로알고지 다리)->블레이크엔 NP->아쉬NP->케넬랜드 NP-> 나바호 인디언 선교지-> 파월호수NP(8시간 유람선)->그랜드 캐년 NP->BRYCE캐년 NP-> Zion 캐년 NP->라스베가스->LA

대표 : 최영봉 목사 1134 S Western Ave #A-5 LA CA 90006
Tel. 213-271-5034

“WCC 공동선언 파기, 정통 기독교회에는 다행한 일”

反WCC 보수 교계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로 결집

‘성경적 신앙을 견지하는 교단과 교회들’ 이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부산총회 반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해놓은 WCC 관련 예산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 WCC 총회 철회축구 운동, 세미나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수적 색채를 띤 이들 교단과 기관들은 15일 중앙일간지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이름으로 WCC 총회 개최가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임시의장은 조용목 목사(은혜와 진리교회)가 맡는다. 조용목 목사는 “WCC 총회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총회를 개최한 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면 그 폐해를 알 수 있지 않느냐”며 “그 폐해의 핵심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헛갈리게 만들지만, 결국 종교다원주의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선지자가 자신 혼자 뿐이라고 한 엘리야에게 7천명을 남겨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각자 활동하던 이들이 이제 모두 한 마음 갖고 힘을 결집하고 하나로 뭉쳐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니 뜻 있는 분들은 모두 함께해 달라”고도 했다.

이들은 “최근 한기총과 NCKK 등이 소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NCKK 실행위원회에서 이를 문제 삼고 나서 급기야 서명한 총무가 사과문과 아울러 선언문 파기를 선언하고 사임했다”며 “이런 와중에 많은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기독교단 연합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의견을 나눈 결과 오늘의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대한기독교총연합회(이사장 이선 목사),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철 목사), 한국개혁교회연합회(대표회장 양정섭 목사),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조용목 목사, 이상 사단법인) 등 총 7곳이며,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각 단체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교단 수는 217곳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들은 이날 ‘WCC의 정체를 밝히며, 이중행위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WCC 10차 총회는 한국 기독교회 일부 교단과 단체가 참여할 뿐이며, 대다수 교단과 단체는 부산총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WCC는 성경과 그리스도와 전도에 대해 정통 기독교회에서 믿고 가르치는 진리를 부정하고 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 단체이므로, ‘교회협의회’라고 하기보다 ‘종교협의회’라는 명칭이 합당하므로 명칭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WCC 10차 총회에 가담하는 교계 지도자들은 이중적 언행으로 교역자와 신자들을 미혹하지 말고,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길 촉구한다 등이다.

성명에서는 “WCC에 가입된 NCKK 회원

교단은 기갑, 기장, 통합, 기하성(사대문·여의도), 구세군, 성공회, 복음교회, 한국정교회, 루터회 등에 불과하고, 여기 속한 성직자와 교인들 중에서도 WCC의 정체를 아는 이들은 교단 지도자들의 결정과 처신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절대 다수 교단은 WCC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총회 개최를 강력히 반대하고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WCC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경전으로, 가감할 수 없으며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절대적 기준과 법칙이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부신론자나 모든 종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등의 ‘성경적 진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공산주의·인본주의·동성애 등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상에 반대하고 개종전도를 금지하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무오하고 절대적 표준임을 천명하는 ‘공동선언문’을 ‘쓰레기’라며 파기했음도 상기시켰다.

특히 ‘공동선언문 사태’에 대해 “이같은 극도의 부정적 반응에 이은 파기선언으로, 자신들의 정체가 종교다원주의이자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며 “우리는 이러한 비복음적 신앙행태에 대해 심히 마음 아파하나, 이같이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노선을 확실하게 표명한 것은 정통 기독교회에게는 다행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와 함께 “교인들 앞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 외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가담하는 이중성을 띠는 소위 교계 지도자들은 정적하지 못하다”며 “NCKK 회원으로 가입하고 WCC 부산총회에 가담하는 이유가 그 단체의 본질과 성향을 바꿔놓으려는 것이라면서, 한편으로는 WCC의 실상을 감추거나 변조하고 더욱이 총회의 성공을 운운하는 이런 이중성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거나 허영에 들뜬 명예욕으로 의심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정직한 지도자라면, 자신이 속한 교단과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WCC에 대하여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대로 가감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조화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려는 행위는 무슨 말로도 타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며 “어떤 일에 협력하거나 침묵함으로써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원인제공자가 되면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중행위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잘못된 데서 돌아서는 용단을 내리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합찬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선교의 선각자’ 게일 목사 탄생 150주년

신분 장벽 허물고 ‘하나님’ 칭호 확립하는 등 다방면 공헌

송실대의 전신 평양숭실학교(平壤崇實學校)를 설립한 윌리엄 베어뜨나 연세대의 전신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를 창설한 언더우드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성경번역·문서선교·복음전파에 이르기까지 한국 선교와 교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제임스 스카스 게일 목사. 그의 탄생 150주년을 기리기 위한 기념예배 및 ‘게일목사기념관’ 개관식이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연동교회(이성희 목사 담임)에서 열렸다.

기념식은 논문집 배포, 기념예배, 기일학술연구원 발기, 게일목사기념관 개관 순으로 거행됐으며, 게일 목사의 손녀인 웬디와 로즈마리 여사를 비롯해 손달의 예상통합총회장 등 기독교계 인사 및 연동교회 교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게일 목사(1863~1937년)가 한국 교계와 사회에 남긴 업적은 다방면으로 방대하다. 그는 처음 평신도 선교사의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1897년 미국 뉴야버니노호에서 목사로 인수받고 다시 돌아와 1927년 떠나기까지 40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했다. 제1기 연동교회 담임목사로서 연합기관장, 100만인구경운동의 실행위원장, 2회에 걸친 독노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선교의 중요한 토대를 구축했다. 또 번역사역, 조선학 탐구와 해외홍보 및 각종 문화사역 등에 큰 업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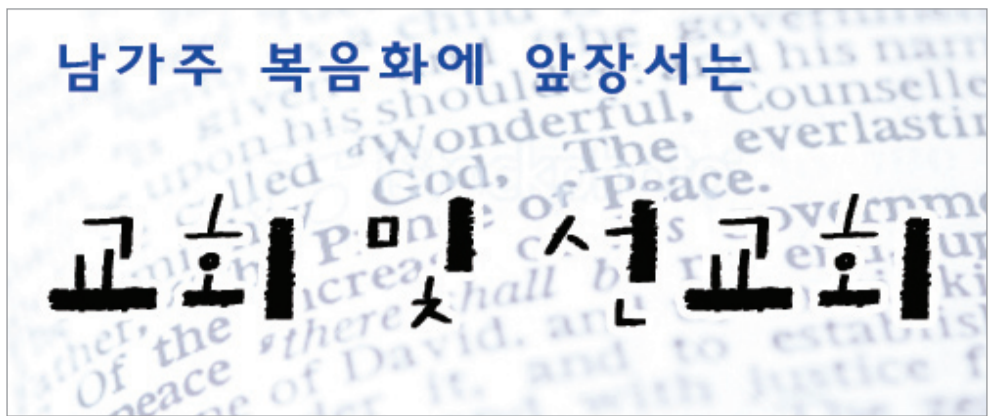
연합기관사역에 있어 그는 독노회장으로, 학부위원으로, 신문사무국위원으로 맡

은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다. 한국에서의 27년을 연동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였으며, 지식인들과 활발한 접촉을 갖고 많은 지성인들을 교회로 오게 했다. 또 당시 양반들이 모인 교회에 천민들 역시 발을 들여놓게 한 장본인으로, 출신과 신분의 장벽이 없는 교회의 전통을 마련했다.

아울러 게일 목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늘의 주’에서 ‘유일하신 큰 분’으로 바뀌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1894년 당시 북 상임성서실행위원회는 신명 채택을 놓고 투표했다. 이때 영국성공회의 한국선교부는 영국성공회 중국선교부와 한국천주교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텐주(천주)’를 채택하자고 주장했고, 여타 개신교 선교사들은 ‘하나님’을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명에 관한 논쟁(1894~1906년)에서 게일 목사는 ‘하나님’이 다신론적인 ‘하늘의 주’가 아닌 유일신론적인 ‘한 크신 분’으로 이해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기념예배 후에는 교회 4층에 마련된 ‘게일목사기념관’ 테이프 커팅식이 있었다. 이 기념관에는 게일 목사의 주요 약력 및 김봉희 사모가 그린 초상화와 진영장 안의 유품 및, 1972년 레이놀드(이늘서) 선교사가 지은 게일 목사의 전기와 화분책박물관의 기증책자 등이 진열돼 있다.

게일목사기념관 부설 기일학술연구원은 20일 개원한다. 이날은 게일 목사가 150년 전 탄생한 날이다. 이종윤 기자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om

강진용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성민 담임목사.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213)598-0191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며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ocrdm.org

김수철 담임목사.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최운형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하나님의교회,사람들의교회,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90006. T. (213) 388-1927,388-2105

박승부 장로. 세계의료선교사육생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90005, CA 90005. T. (213) 381-7273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김혜성 담임목사.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김세담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초대교회의가정모임,성경적코이노니이,민인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 766-9922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심기와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지구촌 농업선교회. 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비른교회간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메(Maturing),앞선다(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hyun.org

김지연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차유와 화백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아닌이세를책임지며,인간정신을치유하며,신교령을준행하는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성재복음선교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598-9932, 213) 327-9200

서견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net

성경통독 길잡이 <씩 난 지팡이> 펴낸 이학진 장로

하루 8시간 10년만에 완성, 리더·평신도에 도움 되길

기사가 1면에서 이어짐



LA사랑의빛 선교교회 이학진 장로. 지난 20년간 교회 평신도 리더로 사역해 온 평범한 크리스천인 그는 “많은 성도들이 설교나 다양한 책을 통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단편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책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평신도들과 특히 말씀 리더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평신도가 준비하는 '성경통독과 이해'라는 작업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기도도 힘을 실어주시던 여러 지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힘들었던 부분은 성경적으로는 평신도로써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없이, 말씀의 주제로 분류되어진 사복음서를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병행하여 시간적으로 배열하고자 시도했으므로 이 부분만 거의 1년 넘게 걸린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처음 집필을 시작할 때와 책을 펴낸 이후의 시점을 비교할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공고해졌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고 보람있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크리스천의 믿음 생활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므로 성경을 읽으며 말씀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을 더욱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진리의 빛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20년 가까이 교회 구역예배 말씀 인도자로 사역하면서 평신도들로부터 ‘성경 읽기를 시도했으나 계속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없어 말씀 읽기를 어려워 합니다.”

지난해 가을, 성경통독 길잡이 <씩 난 지팡이>를 펴낸 이학진 장로(LA사랑의빛 선교교회)의 말이다. “평소 말씀을 삼고해 가던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나 막히는 부분 때문에 부담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그는 평범한 크리스천이다. 비록 신학을 공부한 목사도, 성서학을 전공한 학자도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그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을 집대성하는 것이기에 일반 평신도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온다.

이 책은 성경을 주제와 흐름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구성해 각 단락의 중요 구절을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쉽게 머리와 가슴에 들어오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집필 과정에서 그는 찰스 다이어·유진 메릴의 <구역탐험>을 비롯해 김세운 교수의 저서 <주기도문>,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등 40여권의 신학서적을 참고했다. “성경통독과 이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이나 좋은 교재를 친구 삼아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는 그는 저서<씩 난 지팡이>가 평신도들에게 방해하고 심오한, 그리고 지루한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게 하는 참고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길 바란다 고 기대감을 밝혔다. 다음은 사랑의빛선교교회 문서사역국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책을 낸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제 공부는 처음에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교회를 공부하면서 시작됐고 2003년 장로 장립 당시 친구로부터 받은 이동원 목사의 <시편 강해>를 요약하면서 성경통독의 단초를 꿰게 되었습니다. 그 때 까지 7년 이상 정리해온 성경 강해설교 요약을 중심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간에 앞서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PCMG “베들레헬 기적을 누리자” 마주 한인순례단원 모집

<2013 베들레헬 크리스마스콘서트> 및 이스라엘 성지 순례



이백호 목사(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를 비롯한 PCMG 관계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헬에서 오는 12월 <2013 베들레헬 크리스마스콘서트>가 열린다.

PCMG(태평양연안선교회)는 19일 오전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12월 이스라엘 지역 순례를 위하여 ‘이제 크리스마스콘서트를 가질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에버레스팅 콰이어(Everlasting Choir)’ 성가단원과 성지순례 단원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안에 있는 베들레헬에서는 해마다 12월 중순 점등식을 시작으로 <베들레헬 크리스마스콘서트>를 열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그리스도인들과 순례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한다. 지난해 12월 24일엔 세계 15개국에서 참가한 찬양단 찬양 실황을 전 세계에 중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비위원장 이백호 목사는 “이번 찬양축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임과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다지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믿는다”며 “생애 단 한 번이라도 성지 베들레헬에 달려가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본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하고 싶다는 신앙적 열망을 가진 분들이 한 뜻을 갖고 <2013 베들레헬 크리스마스콘서트>와 순례의 길에 참여하길 소망한다. 이를 위해 새로 찬양단 ‘에버레스팅 콰이어’를 조직했다. 이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지역교회

들이 힘을 보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간구함으로 베들레헬의 기적을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번 콘서트 성가단 규모는 30여명으로, 추후 창단을 위한 단원 면접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 성지 40여국 이상을 순회하며, 목회자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5분 칼럼’ 및 설교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해 CTS TV로 방영한다는 계획이다. 실행위원장 허귀암 목사는 “이번 콘서트는 팔레스타인 베들레헬 시청 당국의 초청으로 열린다. 한국팀 단독 연주도 이뤄지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 세계에 중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코리안들이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무슬림을 향한 복음전파의 출발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이번 행사에 평신도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순례지는 베들레헬 지역을 비롯 헤브론, 사헤, 엠마오,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 예루살렘 등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9박 10일간 이어진다.

주최 측은 현재 텍사스, 하와이, 시카고, 조지아 지역에서 단장을 세워 단원 모집을 시작한 상태다. 아울러 순례에 필요한 경비에는 일반 경비에 비해 저렴한 수준으로 자비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문의: (310) 329-2761(이백호 목사), (310) 913-1661(서문욱 목사), (310) 381-9835(전현미 지휘자) 토마스 맹 기자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45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민경엽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박용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최성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8:00, 2부예배 오전10:00, 3부예배 오전12:00, 4부예배 오전12:30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배명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시, 2부예배 오전 11시, 영아예배(1부) 오전 9시30분, 영아예배(2부) 오전 11시
로템장로교회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손인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크리스천이다.내가 크리스천이다.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방익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4부예배 오후 3시, 청년부 오후 3시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신현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김한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본당), 2부예배 오전 10:00(미러센터), 3부예배 오전 11:55(미러센터)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러센터: 1571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한중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지사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2부 오전 7:30, 3부 오전 9:00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을 경험할 영혼구원과 해님 나라를 이루는 사랑과 생명의 사명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르시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임영민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경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이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박세록 대표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성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앤드류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캐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공동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설날 맞이 연장세일!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무료증정**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위산과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50봉/ea
+ tax

프로모션 A 2월28일까지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280봉) **100봉**
or 오리지널8병 +tax

프로모션 B 2월28일까지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270봉) **100봉**
+tax

프로모션 C 2월28일까지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280봉) **100봉**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Kosher Approved Organic/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세일기간: 2월 28일까지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HQ구연산을 사랑합니다.- 보은사례 운동 안내

HQ구연산으로 모든 질병에서 많은 분들이 해방되고 있습니다.
값싸고 좋은 HQ구연산이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 병을 구입하기에도 힘든신
우리들의 부모님과도 같은 분들께 매달 100봉을 한 병씩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진심어린 마음에 동참해 주신다면 세상이 훈훈해 질 것입니다.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물질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닌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퉁퉁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약은 일제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와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외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고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취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응용연구소 수료
응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부정적 사고를 버리자

안영덕 지음 | 콰란출판 | 272쪽

저자의 '마음의 성전 건축 시리즈-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자'에 이은 두번째 책이다. 저자는 부정적인 사고의 원인과 증상, 치료 그리고 긍정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글을 차례로 읽어나가다 보면 내 안의 부정적 사고에 대한 이해와 치료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당부한다.



책 한권의 사람

유승원 | 새물결플러스 | 294쪽

신약학 박사이자 미한인교회의 중견 목회자인 저자는 성도들이 쉽게 성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 성경의 특성과 목적을 소개하고 성경의 주요 주제를 해설과 함께 다룬다. 측량할 수 없는 분량의 글이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에 들어있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명작독서 명품인생

이상욱 | 예영커뮤니케이션 | 351쪽

1941년 로빈슨이라는 사람에게 의해 대학생들을 위한 학습 전략으로 개발된 'SQ3R's 독서법'을 새롭게 재해석했다. 명품의 삶을 원한다면 명작을 읽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것. 한국독서치료학회 이사도 활동 중인 저자 이상욱 목사는 책에서 명작독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준다.



나는 사형수

박철웅 | 시루 | 388쪽

실제 사형수가 쓴 옥중 회고록으로 30년 만에 재출간됐다. 1983년 '내 목에 밧줄이 놓이기 전에'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적이 있던 이 책은 1979년 6월 골동품상 주인 부부와 운전기사를 납치 살해한 사건의 주범 박철웅 씨가 불펜심으로 휴지에 쓴 마지막 고백문이다.



REVIEW

워렌 위어스비, '내키지 않는 날의 사역'을 말하다

50여년 사역 경험 담아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펴내

'목회자들의 목회자' 워렌 W. 위어스비(Warren. W. Wiersbe)의 50여년 사역 경험을 담은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On Being a Servant of God·CLC)> 개정판이 발간됐다.

워렌 W. 위어스비는 이 책을 "위대한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 집필했다.

1951년 안수를 받았다는 그는 "사역이 수월했던 시기는 단 한 순간도 없었지만, 편리한 전자기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사역은 많이 힘들다"며 "사람들도, 교회도 이전과 달라졌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원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속이 파괴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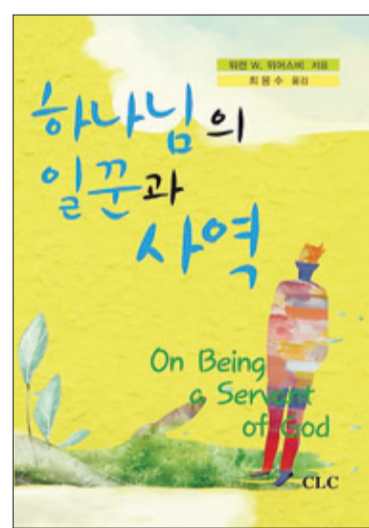
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지만, 그 방법 이면의 원리들을 먼저 이해하지도 않은 채 단지 다른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나침반도 배의 키도 모두 버리는 것이다. 그는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토대로 '사역'을 이렇게 정의한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공허히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역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부르심에 신실해야 하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한다. "사역은 생계를 위

해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는 믿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종류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위어스비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포용하는 사역', '실패와 함께하는 사역', '다리를 놓는 사역', '인격을 통한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의 방법이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는 '내키지 않는 날의 사역'도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 모두는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날들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워렌 W. 위어스비 | CLC | 344쪽

을 받아들여야 하고, 가장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겪는 '기분 내키지 않는 날들' 말입니다. ... 다행스럽게도, 기쁨을 주는 사역은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에 바탕을 둥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정의 호불호에 근거해 동기가 부여되는 사역은 신뢰할 수 없고 이기적이며, 배려 없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같이 고난을 함께 견디어내야만 합니다."

이밖에 독서, 가정, 기쁨, 성경, 복음, 심판대, 용서, 돈, 미래와 사역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의 책 <새롭게 보는 탕자 이야기(CLC)>도 최근 함께 나왔다.

이대웅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 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미스바 대성회, 하나님의 흐름을 타야합니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2002년, 제가 남미에서 사역할 때 한일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질서있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남미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국 사람들은 하나로 뭉치기가 어려운 모래알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월드컵 경기와 같은 '흐름'을

타니까 자발적으로 모여 뜨겁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응원뿐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타면 약팀이 되고, 반면 강팀도 '흐름'이 자꾸 끊어지고 흐름을 놓치면 약팀이 됩니다. 응원이나 운동 경기에도 흐름이 있고, 유행에도 흐름이 있고, 경제와 돈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보다 더 중요한 흐름이 바로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이미 천국까지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흐름을 타면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새는 '흐름'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위, 아래, 앞뒤 좌우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참새는 결코 멀리 못가고 높이 날 수도 없습니다. 반

대로 독수리는 큰 날개를 펴고 공기의 '흐름'을 탑니다. 이렇게 기류를 타고 나니까 멀리도 날고 높이도 날 수 있는 새 중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약1: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누가복음15장의 탕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이제 거지가 되어 생활을 하던 중, 다른 거지가 얻어 온 음식을 배가 고파 마구 먹습니다. 그 때 거지가 탕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희 아버지는 거지냐?' 그러자 탕자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거

지가 말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거지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거지가 되었느냐?' 거기서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스토리로 전개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 아버지도 힘없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고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얼마나 문제가 많으나, 힘드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흐름을 타느냐 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 받으면 가장 불리한 상황도 유익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계속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더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제1회 남가주 미스바 대성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심령,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이 되어서 준비된 그릇 만큼 채워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큰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부어지는 집회가 되도록 앞장서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장자와 같은 이 남가주 땅에 부어주시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샬롬!

한인사회의 유일한 대안 "들려주고 보여주라"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배움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첫째는 보고 배우는 것이다. 고대에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학교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나 환경 속에서는 이미 앞서간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행동,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배워왔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잠을 잤던 자리를 정리하고 얼굴을 씻고 하는 것은 어린시절부터 보고 자랐기에 그냥 배우게 된다. 부모들이 그렇게 했고, 자기의 형이나 누나들이 그렇게 했기에 그렇게 해야만 집안이 정돈이 되고, 자신 또한 청결해짐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배움의 두번째는 듣고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좀 더 체계화된 교육 제도 속에서 먼저 일어난 일의 경험을 앞서간 자들이 다음에 오는

자들에게 입으로 설명하며 들려주는 것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모들의 아이들에 대한 훈계이며, 가르침이다. 지금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아직도 많은 논쟁 중에 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들려줄 수는 없지만, 오직 실제로 보고 배워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일이지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말씀을 배우는데 있어서는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사용하라고 하셨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장 잘 활용한 민족이라 할 수 있다.

유대인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는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구체적 부분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실제로 보여 주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말씀의 실제적인 살아 역사하는 능력들을 경험해 왔다.

한 유대인 연구가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우리 개신교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 말씀을 대하지만,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듣고 강론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말씀의 진수와 복음의 핵심을 이미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핵심을 놓친채 모세 오경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보다 이 세상에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미국의 경제와 정치, 범조계와 의료계, 예술과 언론의 모든 부문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음의 성경의 66권을 온전히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다면,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예술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 놓은 그 업적보다 더 뛰어난 결과들을 이 시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있어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이다.

미움과 고난에도 감사



이기범 목사
스포켄한인장로교회

리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3일 동안 주님이 무덤에 갇혀 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끝났노라는 듯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일으켰습니다. 역사적 사건 가운데 가장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좋은 일과 나쁜 일, 사랑과 미움의 감정들을 각자 표현하고 행동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하여 놀라운 퍼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구원의 퍼즐 말입니다. 인간의 구부러진 판단과 병든 의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6)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닥치도록 허용하시느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왜 신실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도리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현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 깊은 사랑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9).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새 한 마리가 마른 우물 속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쓸모없는 동물을 굳이 살려낼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고, 그대로 매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삼으로 흙을 퍼서 던졌습니다. 그러나 노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등판에 흙덩이가 떨어질 때마다 노새는 몸을 흔들었습니다. 흙이 떨어지니 이제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흙을 밟고 올라섰습니다.

삼질이 이어질수록 노새의 위치는 높아졌습니다. 결국 노새는 우물 꼭대기에 닿아 걸어 나왔습니다. 노새를 죽이려는 자들이 생각했던 매장 방법, 그것이 도리어 노새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하고, 사람들을 여론으로 몰아 불법 재판을 강행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악의에 찬 감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자신들이 승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소 : 324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황수원 목사, 제단 이사장 유당열 목사

“강인함은 핵심에 집중할 때 형성된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회

분재(potted plant)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나무를 화분에 심어서 줄기나 가지를 보기 좋게 가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분재된 나무를 접하면서 보기엔 좋지만 실상 높이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조그만 화분 속에 강압적으로 가두어 놓은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분재는 계속 가지를 쳐줌으로써 작고 아기자기하게 자라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언뜻 보기엔 자연에서 높이 자랄 수 있는 나무를 화분 속에 가두어 성장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분재된 나무는 자연목에 비해서 굉장히 강인하다고 합니다. 분재 기술자는 잔가지를 계속 쳐내버리

고 나무의 생명력이 결집된 부분만을 남겨 놓습니다. 이렇게 분재된 나무는 언뜻 보기에는 조그맣고 가냘픈 생명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연속에 자라는 나무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재되어진 나무는 소량의 수분으로도 생명을 유지하며, 각종 해충이나 병충해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인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분재된 나무가 잔가지 치기를 당함으로써 결국은 핵심에 집중하는 생명체가 됩니다. 그런 나무는 자연목과는 비교되지 않는 강인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에서 참 좋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삶도 강인함을 필요로 합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삶의 주위에는 너무도 많기 때문

입니다. 강인하지 못한 자연목이 각종 자연재해와 병충해에 시달리다 까맣게 말라 죽어가듯 강인하지 못한 삶도 각종 요소에 의해 서서히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도덕의 문제 등등... 이런 병충해적 요소는 시도 때도 없이 삶을 괴롭힘으로써 결국 강인하지 못한 삶을 쓰러지는 순간을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이 강인함은 결국 핵심에 집중함으로써 형성됩니다. 계속 잔가지를 쳐내면서 결국 핵심만을 남겨놓은 분재된 나무처럼 인생의 핵심으로 역량을 집중시킬 때 강인함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삶의 핵심은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핵심은 '고유한 목적'의 실행

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목적을 품으셨습니다. 아무 목적없이 창조된 개체는 없습니다. 인생에 부여된 고유 목적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과감한 주변가치에 대한 가치치기 작업은 필수입니다. 주변가치가 제거될 때 비로소 핵심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핵심가치에 집중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도와의 깊은 친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삶은 강인한 자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만 이해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바로 강인함을 이룬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이 새로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부부들의 사랑 고백



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울리고 끼니때마다 C전도사님이 만들어 주시는 성대한 음식들을 즐기며 저녁 집회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이끌던 제가 문득 우리 이런 기회에 부부마다 모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공개적으로 갖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남편 목사님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머쓱해지는 느낌들을 보았습니다. 뭘 쑥스럽게 그런 순서까지 공개적으로 갖느냐 하는 의아한 반응들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해 보니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의자에 앉은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사랑을 고백한 P목사님이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했어. 정말 당신을...” 하고 몇 마디 입을 열던 P목사님이 갑자기 목이 메며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오래갔습니다. P목사님의 사모님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모든 목회자 부부들이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사랑 고백의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목회자마다 아내 앞에 꿇어앉으면 눈물들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미안한 것들이 많았는지, 왜 그토록 마음

을 아프게 했었는지, 그리고 왜 그리도 인색하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었는지, 결국 남편 목회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목회하느라 바쁘고 긴장해서 당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 “밖에서 뛰는 바람에 안의 일은 모두 당신의 몫인데 오히려 고마워하지 못했고 위로해 주지 못했다” 등등으로 그날 밤 사랑의 고백들은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 역시 젊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앞이라는 것도 상관없이 흐느껴 울며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장 두 시간이 넘게 계속된 갈릴리의 사랑 고백이다 끝난 후, 우리는 마치 안개가 걷힌 푸른 초장에 함께 거닐고 있는 청순한 부부 같은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눈물들을 닦고 다시 웃기 시작하며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제일 뜨거웠다”, “닭살이 돋았다” 등의 멘트들이 오가다가 내린 결론은 오직 한가지였습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 목회자 부부들만 가지는 것보다 교회 내 모든 셀교회에서 모든 부부가 같은 체면을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벌써 그런 순간들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용기를 주는 칭찬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표현하는 고마움이 저로 하여금 앞날을 더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칭찬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칭찬은 누구에게 들어도 좋습니다. 칭찬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칭찬은 자기 존재감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칭찬은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다시 달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상에 칭찬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물론 항상 모든 일에, 그리고 일방적으로 칭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칭찬은 값싼 칭찬으로서 듣는 사람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상황에서도 보석처럼 칭찬할 것을 찾아내는 사람은 예술가의 안목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의 인생에 창조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창조적으로 칭찬하는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사는 일이 힘들고 버겁고 지루하게 느껴지거든 생각을 바꾸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겨울을 지난 나무 가지에 새순이 돋는 것처럼 삶의 활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후면, 저희 감사한인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수개월에 걸쳐 교회 내 창립 3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30년사 편찬과 축하음악회를 비롯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30년사 말미에는 특히 주옥같은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부교역자들이 익명으로 좌담회 형식을 빌려 엮어 놓은 글은 저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저는 다 잊어버린 이야기들을, 마치 이사 가려고 짐을 싸다가 발견한 편지처럼, 지난 날들을 생생하게 되새김질하게 해주어서 행복하게 기뻐했습니다. 저에게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던 일들, 주의깊고 예리하게 저를 관찰해온 그들의 통찰력, 그리고 그들이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562-467-1114
cer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류재규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Life



중년부부의 위기요소

아담과 하와의 결혼생활은?

태초에 결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왔는데 아담은 하와를 보자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 2:23)고 고백하였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그들만의 파라다이스에서 달콤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영원히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부부의 위기는 현대 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세상 시작부터 있었던 일이다. 천생연분인 부부와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인 이상 위기요소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 사이를 방해하는 뱀이 나타났다.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며 두 사람의 관계도 무너졌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들은 "네 탓이야"-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먹으로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꾀므로 먹었나이다(창 3:13, 14)-라고 하였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었다. 드라마 "울랄라 부부"처럼 남자가 영혼체인지라든가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 뿐 아니라 현대 부부들에게서도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연애시절에 남자들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한다. 부부가 되어 결혼 후 신혼 때까지는 열정만으로도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느끼지만, 아내는 남편과 아이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남편은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외부활동에 치중하면서 서로의 열정이 쇠퇴하게 된다. 중년의 부부는 권태와 매너리즘, 무관심, 섹스리스 등에 의한 삶의 의미 퇴색과 회의감을 갖게 된다. 반복되는 일상생활과 성생활, 대화의 부족 내지는 단절로 일체감이 결여되기 쉽다. 또한 부부 싸움으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생겨 자괴감이 생기고, 자존감과 자존심의 상처, 폭력으로 인한 공포감이 나타나기도 한다. 각자가 배우자와 함께하는 노력을 포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과 애정의 감정을 받게 된다. 특히 외도와 불륜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 되어 가정 붕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대부분 이혼사유 1순위는 남편 외도로 인한 가정 소홀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력 부족과 권위주의 등이다. 한국가사소송연구소(law91.co.kr) 박상희 변호사는 "애나 지금이나 외도와 폭행이 이혼사유 1순위를 지키고 있다"고 하였다. 신앙인 가정이라고 부부위기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대부분 현재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기독교인의 이혼율을 약 30%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교회는 이러한 현상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게 되었다.

어떤 남편이 "아내와는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고, 섹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말만 하면 싸우게 되니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더욱이 아이들이 아빠가 와도 본체만체하고 있으니 내가

왜 사나 싶습니다. 요즘은 돈 벌어서 주는 기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외롭고 힘듭니다"라고 하소연하였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창 2:24)-일까?

아담과 하와는 약 천 년(아담 930세 죽음)의 결혼생활을 하였다. 오늘날은 천 년에 비하면 적은 시간을 함께 산다. 부부결혼 기념일로 은혼식(25주년), 금혼식(50주년)을 보내며 길어야 회혼식(60주년)이 있을 뿐이다. 인간은 단 한 번 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행복 연구소에서 3,000여건의 상담을 통하여 외도문제를 다룬 임상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무의식적 심리차이를 분석하고 부부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과 중년부부가 열정과 사랑이 충만하여 더욱 행복해지는 비결을 나누고자 한다. 다음 글에는 중년부부의 외도와 불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글=이선이 박사)

■ 이선이 박사는 누구?

이선이 박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장신대학원에서 석사(M.Div), 박사(Th.D. in Missiology) 학위를, 미국 플로리다신학원(FCTS)에서 여성리더십으로 박사(D.Min)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행복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

생활한의학

디스크

디스크는 허리의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는 원반에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디스크는 쫘득한 게 마치 물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위의 척추뼈가 균형을 못 잡거나 퇴행되거나 해서 물주머니를 누르면, 한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어서 신경을 누릅니다. 그러면 통증이 생기거나,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하게 됩니다. 탈출된 증상이 아주 심각해서 다리를 들어올리지 못하는 등 보행장애가 일어나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디스크질환의 증상은 허리디스크일 때는 다리가 저리고, 목디스크일 때는 팔이 저린다고 표현을 하고, 허리나 목 자체의 통증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얼굴 지압

장수하기 위해서는 얼굴에서 손을 떼지 말라는, 건강에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얼굴의 경혈점을 꼭꼭 눌러주면 피로도 풀리고, 그에 해당되는 오장육부도 건강해집니다. 비염이 있으신가요? 코 옆의 혈자리를 눌러주면 비염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눈이 피로하시면 손을 뜨겁게 비벼서 눈 위에 살짝 올려놓으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혈액이 달라질테니.

(하랑한의원 박용환 원장)

이스라엘 탐방

막달라 회당(Magdala Synagogue) II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회당은 주전 1세기에서 주후 1세기의 것이다. 골란 고원의 감라(左), 유대 광야의 맛사다(中), 그리고 베들레헴의 남동쪽 유대 광야의 헤로디움(右)에서 발견된 회당이 가장 오래된 것들이다. 지난 9월 11일 보도된 막달라 회당이 발견되기 전까지,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갈릴리에서 단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견된 막달라 회당은 매우 중요하다. 갈릴리에서 발견된 첫번째 회당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발견된 '메노라가 새겨진 유물' 역시 회당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막달라 회당은 호텔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Ark New Gate 회사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막달라 해변가에 호텔을 건설하면서 우연히 고대 회당터를 발견하였다. 발견된 회당의 중앙 홀 크기는 약 120 평방 미터이며 하얀 석회를 바른 후에 채색을 입힌 벽을 따라 회당 참석자들을 위한 돌 의자를 설치하였다.

회당 바닥은 모자이크로 처리되었다. 이 회당의 중앙 홀에서 사면으로 돌을 새겨 문양을 낸 돌(下)이 발견되었는데, 가운데 촛대(메노라)가 있고 그 양 옆으로 향아리를 새겨 두었다. 막달라 회당의 발굴 책임자는 디나 압살롬 고르니(Dina Avshalom Gorni)와 아프란 나자르(Afran Najar)로,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회당을 만든 전문 장인은 예루살렘 성전 안의 촛대(메노라)를 목격한 사람으로, 자신의 경험에 기초



다윗성에서 발견된 1세기 데오투스 회당 비문

하여 성전의 촛대(메노라)를 모델로 삼아 막달라 회당의 촛대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던(마 4:23)' 예수님께서 막달라 회당을 방문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예수님은 이번에 발견된 막달라 회당에도 방문하셨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셨다. 막달라 회당은 갈릴리에서 발견된, 예수님 당시의 유일한 회당이다.

주후 67년 요세푸스가 로마에 저항하여 반란군을 이끌었을 때, 막달라 마을은 유대인의 주요 본거지였다. 막달라 주민들은 갈릴리와 디베라가 로마에 함락된 후에도 계속 저항하였다. 그래서 막달라가 함락된 이후 많은 주민들은 목숨을 잃었고 노예로 팔려갔다. 막달라는 주후 18년 헤롯 안티파스가 새로운 수도인 디베라를 건설하기 전까지 갈릴리 지방의 행정 중심지였



막달라 회당에서 발견된 '메노라가 새겨진 돌'

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마을 출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고대 회당의 일차적인 기능은 토라를 읽고 배우는 데 있었다. 예수님은 이 관습에 따라 회당을 복음 전도의 중요한 장소로 이용하셨다. 하지만 회당이 언제나 예수님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유리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유대인의 전통인 장로들의 유전(Oral Tradition)에 위배되었을 때, 회당은 오히려 위험한 장소였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을 때, 회당에 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단순히 나사렛 출신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율법의 전통적인 해석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눅 4:16-30).

나사렛 회당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지 나사렛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회당에서의 갈등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자주 발생했던 갈등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제자들에게 '회당에서의 핍박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마 10:17 참고).

이번에 발견된 막달라 회당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 회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당에서 유대인 예배와 회당에서 유대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주섭 목사

- 현)두루Tentmaker(www.eduru.co.kr/두루투어/두루에듀/두루문화원) 고문
- 현)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 (Georgia Christain University) 역사 지리학과 교수
- 현)성서지리연구원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원장
- 전)예루살렘 대학 역사학과에서 고대 성읍,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에서 고대 도로를 수학
- 전)4X4 지프를 이용하여 방문 가능한 모든 성경적인 유적들을 탐방

WIN HYUNDAI at El Monte

<p>VERACRUZ Limited 2012</p> <p>1 at this offer VIN# NCU187566</p> <p>MSRP.....\$35,625 Cash out of pocket...\$3,995 36 month lease 12k miles per year Competitive.....\$1,500 Other rebate.....\$1,500 Total drive off.....\$6,995</p> <p style="text-align: center;">Lease \$259 per month plus tax</p>	<p>SANTA FE SE AWD 2012</p> <p>1 at this offer VIN# NCG 137195</p> <p>MSRP.....\$32,565 Cash out of pocket...\$3,995 36 month lease 12k miles per year Competitive.....\$2,000 Other rebate.....\$1,000 Total drive off.....\$5,995</p> <p style="text-align: center;">Lease \$259 per month plus tax</p>	<p>SONATA GLS 2013</p> <p>1 at this offer VIN# NDH663390</p> <p>Cash out of pocket...\$2,995 36 month lease 12k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4,995 Other rebates.....\$1,500 Competitive.....\$500</p> <p style="text-align: center;">Lease \$89 per month plus tax</p>	<p>ELANTRA GLS 2013</p> <p>5 at this offer</p> <p>MSRP.....\$19,015 Cash out of pocket...\$2,995 36 month lease 12k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3,995</p> <p style="text-align: center;">Lease \$79 per month plus tax</p>	
<p>한인담당 Alex Shin</p> <p>www.winhyundai.com</p> <p>El Monte</p>		<p>■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p> <p>■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p> <p>■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p> <p>■ 최고의 가격을 보장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p> <p style="text-align: center;">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2월 28일까지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Assurance Tel. 888.409.3002</p>		
<p>HYUNDAI</p>		<p>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p> <p>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p>		

COVER STORY

마르바 던 “창세기 1-3장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성품 충분히 음미할 수 있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
마르바 던 | IVP | 248쪽

〈안식〉을 쓴 ‘약함의 신학자’ 마르바 던(Marva J. Dawn)이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토대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이상 IVP)〉를 펴냈다. 원제는 ‘In the Beginning, God(태초에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 1-3장

의 내용만으로도 하나님이 늘 진행하실 일반적 방침에 꼭 잡길 수 있으며, 그분의 성품을 충분히 음미함으로써 그분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이 가능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책의 첫 문장은 이러하다. “성경이 주제로 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성경의 주제를 ‘우리 자신’이라 상상한다는 것. 죄의 본질도 바로 ‘자기중심주의’ 아니던가. 저자는 그러므로 기독교적 삶의 목표를 ‘날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어 우리 생각과 행위와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고, 매순간 우리가 만든 우상이나 문화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그래서 저자는 창세기의 핵심, 특히 1-3장의 목적에 ‘예배’가 있다고 단언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와 타락 이야기는 과학 교과서가 될 마음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생물학과 천문학의 사실(What)과 방법(How)을 묻거나 선사시대의 시기(When) 등 그릇된 물음을 던집니다. 창세기 1-3장은 이유(Why)를 물으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특히 1장의 반복되는 중요 구절은 ‘예전적 후렴’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과학에 심취하면 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누가?’라는 물음이 생겨나고, 이는 다른 모든 물음을 포

괄하며 과학 세계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 그 세계의 발견물들이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간다. 더구나 과학이 새의 노래를 가능케 하는 역학을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과학은 찬양을 논박하지 않고, 성경의 서두는 과학적 물음에 설명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성경의 서두는 오히려 환희를 요구합니다.” 이 책의 주된 목적도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를 두고 다루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여러분들이 그런 다름을 넘어 창세기 본문들과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들에 새로운 물음들을 던지고, 우리 안의 거룩한 성품을 길러 줄 기독교 공동체를 발전시키며, 우리 사회의 유해 환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끊임없는 예배로 이끌어 주는 데 사용되길 바랍니다.” 저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첫 번째 창조 기사’에서 인간의 성품 형성과 다른 피조물에 대한 태도, 공평한 분배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 다른 날을 온전히 살기 위한 안식 등을 이끌어내고(더없이 좋은 창조), 2장 4절부터의 ‘두 번째 창조 기사’로부터 관계라는 개념,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이와와의 관계, 온 땅과의 관계 등이 하나님의 기본 계획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물을 누리시려면 인간의 동의와 자발성이 필요하다. 여

기서 저자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문제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려 하는 이유에 집중하면서 겸손 속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알다시피 뱀은 여자에게 ‘다섯 가지 의혹’을 제기했고, 여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열매의 ‘삼중 유혹’에 빠져버렸다. 창세기 3장은 이같은 ‘타락’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문화의 관계에 끼친 영향들을 말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초조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목적을 신뢰하는 것과 우리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비틀거리게 돼 버렸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배반’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 계획은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 모두를 자신 안에 품어안고 계심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실존적 물음들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3장에 등장하는 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우주와 조화를 이루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똑똑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대웅 기자



동방현주 2집 ‘베드로의 고백’ 발표

‘사명’의 가장자언 알려진 동방현주가 7년 만에 두 번째 정규 앨범 ‘베드로의 고백’을 발표했다. ‘사명’의 작곡자 이권희가 프로듀서로 함께한 동방현주 2집은 그동안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변함없는, 그러나 훨씬 깊이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품이다. 한 곡이 히트하면 단시간에 여러 가수 앨범

에 리메이크되는 국내 CCM계의 특성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원곡의 오리지널리티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성악을 전공했던 동방현주의 정체성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앨범에는 동방현주만의 색깔이 잘 드러나 있다. 분명 성악 본연의 느낌을 살리고 있지만 이권희의 대중적인 멜로디에도 흥대진의 진보적인 편곡에도 잘 어우러지는 것은 여

타의 여가수들에게는 찾기 힘들었던 부분이며, 그녀만의 능력이라 하겠다. 직접 가사를 쓴 ‘다시 일어납니다’와 같은 곡은 가수 본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에 겨운 현대의 크리스천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같은 노래다.

신태진 기자

Gold Finger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후 배달**

봄맞이 세일
목회자님 위한 세일 20%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어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판매 김기형

Excel Legal Center(엑셀법률센터)

- 영주권, 시민권 신청
- 주식회사,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
- 혼인, 이혼, E2 투자
- 퇴거, 소액재판, 파산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 노인 시민아파트 신청대행

☎ 213-365-6622 (67+ 사무스베일러앤코대학원 학생빌딩)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 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방베어 농축 흡연소

상왕 흡연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흡연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흡연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흡연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음2낭]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Living water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 미국 FDA세계 최초 승인
- 러시아 GOST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 높고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 수질안전, 이온 활성화, 경제성 확보
-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 반영구적 집안, 밖 100%사용
- 산업,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usa.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 알로에 베라 신제품 알로에-에타글루코산 분쇄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영양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당뇨,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 제작관리 및 수정

쇼핑몰, 게시판 관리

다양한 디자인 배너제작

start from **\$499**

제작문의 **213.587.3498**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란드 신안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스마트 월드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핸들 커버 \$30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핸들 커버 \$30

출몰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제작(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제1회 남가주 미스바대성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강사: 박보영 목사
(인천방주교회)

일시 : 2013년 3월 1일(금) - 3일(주일)

장소 : 동양선교교회당

주관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첫째날 3/1

저녁 7:30

둘째날 3/2

새벽 5:30
저녁 7:30

셋째날 3/3

오후 4:00

미스바대성회 조직

- 대회장 진유철
- 고문 노창수, 민경엽, 민종기, 박성근, 박희민, 변영익, 손인식, 신승훈, 이운영, 한기홍, 홍영환, 한종수
- 준비위원장 박효우
- 준비위원 강용순, 김성민, 박형은, 우광성, 원영호, 이동준, 정우성, 지윤성, 황의정
- 실행위원장 양경선
- 실행위원 강순영, 김철수, 이일, 조요한, 차권희, 홍성관

(가나다 순)

LET'S START @ SUPER STORE

혜택 | 혜택 | 혜택 | 혜택 | 혜택



WWW.PHHYUNDAI.COM



2013 SONATA GLS

48Month lease /12k mile/ T.D.O 5,999
 MSRP \$22,175
 PH HYUNDAI/DIC \$684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92
 +TAX (STK. 5898651)



2013 EQUUS Signature

48Month lease /12k mile/ T.D.O 5,999
 MSRP \$60,150
 PH HYUNDAI/DIC \$3,582 LEASE CASH \$1,500
 COMP. REBATE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559
 +TAX (STK. 0665421)



2013 ELANTRA GLS

36Month lease /12k mile/ T.D.O 5,999
 MSRP \$19,015 PH HYUNDAI/DIC \$427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55
 +TAX (STK. 248683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브라이언 리 858.337.3993
 스티브 정 626.513.4006

빅터 최 626.482.0681
 제니 김 626.513.4683
 찰리 정 626.513.4981

Puente Hills Hyundai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